

독립정신

2013년 1, 2월호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 물산장려운동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
- 김구와 최준례

특별기고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진정한 방법

청년학생이 간다
- '평화의 소녀상' 만든
김운성, 김서경 부부 작가를 만나다

67호

2012년 7월 22일

제 8기 독립정신 답사단 <답사단의 밤>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의 한마디를 꺼내봅니다.

마음 가득 나라 사랑을 품은 채 6박 7일 마지막 답사단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어데까지 왔니

어데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어사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개울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뒷산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훈련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숲속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고개 너머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왜놈 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해설

위 노래는 북한지역과 만주 등지의 항일독립군들의 근거지에서 널리 불려졌던 우국 민요이다. 펄박한 민중을 상징하는 마을과 뒷산에서 염원하는 공부가 어찌 학습이론만으로서의 시간이었겠는가. 반일 빨치산과 가난한 농민들의 꿈이기도 한 왜놈 치러 간다는 종결어와 우리 모두 간다는 후렴구가 당시 일제 강점기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출전 : 혁명가요집 김형직, 김일성 외 편저
1959 북한 노동당 출판사.

■ 시 선정 : 홍일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독립정신

2013 1*2

통권 67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용수,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
당선자에 대한 기대
| 김 자 동

06 독립운동사의 재조명_첫번째
물산장려운동
| 이 준 식

14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_첫번째
김구와 최준례
| 홍 소 연

22 특별기획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
| 임 재 경

26 종교 속의 독립운동사
한국 천주교회의 항일독립운동
| 윤 선 자

33 특별기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진정한 방법
| 육 철 희

40 청년학생이 간다
‘평화의 소녀상’ 만든
김운성 · 김서경 부부 작가를 만나다
| 장 윤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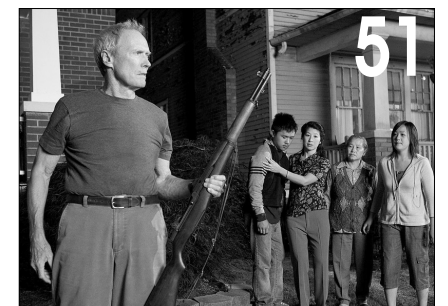
44 100년 편지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 김 찬 수

49 영화읽기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국적 노스탤지어
| 이 두 희

53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두번째
빛창으로 다구찌 도지사 혼쫓낸
제주 해녀 “부춘화”
| 이 윤 옥

55 임정서가
상하이 일기 - 임정의 품 안에서
민주주의자 김근태 평전
장물 바구니 - 정수장학회의 진실
| 편집부

62 독립정신 이모저모



당선자에 대한 기대 - ‘절망자’에게 희망을



김 자 동

지난 달 19일의 대통령 선거가 2주가 지났어도 그 결과에 대한 흥분과 후유증이 남아 있는 듯하다. 방송과 주요 매체들은 여전히 경축일색이며 밝은 앞날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선의 결과에 낙심할 정도를 지나 절망감에 빠진 사람도 있다.

투표 결과가 나온 지 불과 30시간 후인 지난달 21일 아침, 한진중공업 노조의 최강서 조직 부차장이 노조사무실에서 목매어 자살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의 유서에는 ‘5년을 또.....’라고 적혀있으며, 이것이 그의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직자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등의 수단으로 복직자들을 박해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려 15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있다.

최 씨가 자살한 다음날 선거 결과에 대한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한 자살자 두 사람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조의 조직부장을 지냈으며, 역시 비정규직인 운전사로 생활하고 있던 이운남씨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인에게 최 씨의 자살소식을 듣고 “손이 떨려 운전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고 한다.

같은 날 민권연대의 활동가 최모씨도 서울 도봉동의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동료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그 역시 ‘대선결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 다음 날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의 전 지부장인 이호일씨의 자살이 이어졌다. 그리고 성탄절 하루 전인 24일 그의 빈소를 지키던 노조 수석부 지부장 이기연씨가 동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숨진 일까지 발생했다.

한국외대에서는 박철 총장이 취임 후, ‘질기고 질긴 소송’으로 노조원들을 계속 괴롭혀왔다고 한다.

그는 취임직후,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호언하며 자신의 반 노조적 입장을 자랑삼아 왔다고 한다. 그리고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타협으로 인한 학교 측 부담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르면서 소송을 계속하여 어려운 처지의 노조원들을 옥죄어왔다. 결국 교육자로 자처하고 있는 박 총장의 노력의 결실로 젊은이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이들이 받은 고통이 박근혜 당선자 때문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씨가 당선되면 정부가 자신들의 처지에 보다 동정적일 것으로 생각했으며, 박 후보의 당선에 ‘절망감’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

당선이 확정된 후 박근혜씨는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전경련 방문에서 대기업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당선인은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 문제와 MBC의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내세운 MB와는 달리 박 당선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어려움이 태산 같으며 할 일도 산적해 있어 모든 약속을 다 함께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위에 말한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은 취임 전에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선인이 그들이 속해있는 회사에 노조원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해바라기’ 성향의 이들 기업과 교육자의 처세가 바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중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하여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벌써 ‘포폴리즘’이 없지 않다고 말하며 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경제 민주화를 약속대로 추진하려면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부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당내의 반발을 극복하며 정치민주화를 계속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우선 박 후보의 당선에 ‘절망감’을 갖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를 취하기를 갈망한다. ☎

물산장려운동 : 경제적 실력양성을 추구한 문화운동



이 준 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920년대 초 문화 운동론의 등장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은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부르주아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대중운동, 문화운동, 무장투쟁, 외교운동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외형상 1920년대 초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민족운동은 문화운동이었다. 문화운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앞으로 올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만들자는 운동을 가리킨다. 1923년 전반기에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물산장려운동은 문화운동의 최고봉이자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문화운동이었다.

그런데 문화라는 말 자체는 1910년대 말에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하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이었다. 문화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널리 퍼지게 된 데는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열강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한 3·1운동은 그 열기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민족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그랬다.

여기에 1910년대의 무단통치로 인해 3·1운동이 일어났다고 본 일제는 식민통치 방침의 전환을 모색했다.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인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일제로서야 식민통치를 안정시키려는 의도 아래 문화정치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후 식민지조선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동아일보』와 『개벽』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문과 잡지였다. 그런 두 매체가 창간과 동시에 문화를 표방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분명히 당시의 시대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출범한 수많은 청년·여성·소년·종교단체 등을 통해 독립과 해방에의 새로운 전망 아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문화는 개조와 더불어 1920년대 초반의 최대 유행어였다. 이제 바야흐로 문화운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20년대 초 문화운동의 특징은 민중의 생활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문화운동론은 지식인의 담론으로 출발했지만 민중을 문화의 주체로 설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실제로 문화운동론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던 『동아일보』나 『개벽』의 지면에는 부인·인종·노동·농촌문제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그런 가운데 ‘민중의 해방’, ‘민중과의 연대’, ‘민중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설도 등장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운동에서 말하는 문화에는 사실상 정치를 제외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포괄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운동론자들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생존권을 거론하고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과 교육기관 설립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운동의 한 축을 이루던 『동아일보』의 경우 수시로 사설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는 했다.

문화운동과 사회주의운동

1920년대 초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실력양성론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문화운동을 주도한 『동아일보』 그룹이나 『개벽』 그룹,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현장의 문화운동을 이끈 수많은 사회단체의 주체 가운데는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의 사람이 많았다. 실제로 문화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실력양성이란 말도 부르주아 민족운동에서 즐겨 쓰는 것이었다. 당시는 “조선독립은 당분간 절망이므로 조선인은 교육, 산업과 같은 문화적 시설에 열중해 실력양성에 진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문화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관련성이다. 문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문화운동(론)이 등장할 무렵에 사회주의운동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운동은 문화운동(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을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서울파, 북풍파 등의 ‘공산주의그룹’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문화운동과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해파이다.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될 때 창간호 사설을 쓴 장덕수는 『동아일보』계열이자 동시에 상해파의 성원이었다. 상해파 국내조직의 책임자가 바로 장덕수였던 것이다. 국내 상해파는 문화정치 아래 허용된 공개적인 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이 역점을 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청년단체이던 조선청년회연합회 안에서의 활동이었다.

상해파는 즉각적인 공산주의사회의 실현보다는 독립을 운동의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혁명론의 연장선에서 광범위한 민족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었다. 국내 상해파는 상해파의 민족혁명론에 입각해 문화운동론을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겼다. 보기를 들어 1922년 4월에 열린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차총회에서 장덕수는 “조선에서는 아직 혁명을 위한 계기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계몽운동을 통해 인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의 잠재력을 교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상해파는 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오지 않았고 그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운동의 전술도 준비기에 조응하는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것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회주의운동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하지만 당시 노동자계급의 역량은 혁명의 주체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준비의 일환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상해파의 운동론이었다. 상해파는 문화운동을 표방한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과의 연대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주도하고 있던 국내 상해파는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집행위원회 건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건의안에는 “조선인의 산업적 권리를 부인 혹 박탈하는 자는 곧 그 생존권을 부인하고 그 생명을 박탈하는 자로 인정한다”, “조선인은 조선인의 제조품을 사용하며 조선인 상인을 통하여 매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내 상해파에 의해 물산장려운동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 건의안에 대해 장덕수가 주필로 재임하고 있던 『동아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긴 해설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생존권론 또는 사회권론이라는 개념이 쓰인 것 자체가 국내 상해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산장려운동의 전개과정

3·1운동 이후 일제는 민족분리정책을 추진했다. 조선인 유력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려는 정책을 펼 것이다. 무단통치 아래 조선인의 자본투자를 억제하던 회사령을 폐지한 것이 라든지 제한된 영역 안에서 비정치적인 결사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조선인 부르주아지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합법적인 비정치운동으로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벌이려고 했다. 애초에는 1921년 7월부터 조선인산업대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선총독부에 조선인에 의한 자본축적과 공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면서 조선민중의 자각에 의한 사회적 경제운동을 통해 조선인 경제를 진흥시키려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물산장려운동이 추진된 것이다.

물산장려운동이란 조선인의 생산품(토산)을 사용해 조선인의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다. 사실 토산애용론이나 산업진흥론은 1910년대에 이미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20년 7월 30일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물산장려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는 데는 2년의 시간이 걸려 1922년 6월에야 물산

장려회 창립총회가 열릴 수 있었다. 물산장려가 ‘조선인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될 것을 우려한 일제가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의 움직임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국내 상해파는 조선청년회연합회와 『동아일보』를 통해 전국적인 범위의 물산장려운동 전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 가운데 1922년 가을에는 물산장려운동의 현실화를 촉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세가 곧 철폐될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일제는 1923년 4월부터는 주류와 직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 공장은 영세한 수준이었다.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란 애초부터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나마 일본상품의 무제한적 유통을 막는 장치로 기능하던 관세가 철폐된다면 조선의 시장은 가격이 더 내려간 일본상품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 분명했다. 관세의 철폐는 1910년대 후반 이후 공장을 설립해 막 상품을 생산하고 있던 조선인 자본가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이에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본상품 유입에 대응해 재생산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로 대중적 경제운동의 전개를 모색하게 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1922년 초부터 『동아일보』에는 당국의 조선인 공업 보호정책을 촉구하는 한편 민족적 경제단체의 조직과 조선인 금융기관 설립 등의 대중적 경제운동을 일으키자는 주장을 담은 사설이 자주 실렸다. 사실상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922년 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조선물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의 표어를 현상모집했다. 당선작 가운데 하나인 “내 살림은 내 것으로”라는 표어는 이후 물산장려운동을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지방순회강연단을 북부지방 일대에 파견하기도 했다. 1922년 12월에는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조선인은 일치하여 조선물품만 쓰고 수입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자작회를 발기했다. 물산장려운동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23년 1월 20일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총회가 열렸고 이어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창립총회가 열림으로써 물산장려운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조선물산장려회의 임원진으로는 유성준(이사장), 김철수, 나경석, 임경호(이상 상무이사), 설태희, 이종린, 백관수, 이순탁, 박동완, 이갑성, 이시완, 김동혁, 정노식 등이 뽑혔다.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3·1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민족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선 눈길

을 끈다. 아울러 사회주의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도 여럿이 눈에 띈다. 국내 상해파의 성원인 나경석, 정노식을 비롯해 이순탁, 이시완, 고용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경석은 상무이사까지 맡았다. 이는 물산장려운동 초기만 해도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과 일부 사회주의세력이 함께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사장에는 친일파인 유성준(당시 조선총독부 참여관)을 내세웠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산장려운동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성준을 비롯해 여러 친일파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후 물산장려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조선물산장려회의 창립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물산장려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조선물산장려회취지서를 통해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민족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족적 위기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다.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단순명료한 구호 아래 물산장려운동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다. 조선물산장려회의 지회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을 벌인 경우도 많았다. 현재 물산장려운동을 목적으로 ‘물산장려회, 토산장려회, 자작회’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든 것이 확인되는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68개 지역에 이른다.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만주의 간도 용정촌에서도 1923년 1월 산업장려회가 창립되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별도의 물산장려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사회단체가 물산장려운동을 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물산장려운동의 절정기는 너무나도 짧았다. 1923년 초 절정을 이루던 물산장려운동은 바로 위기를 맞았다.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세력이 이 운동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주의세력 가운데 조직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을 지지한 것은 국내 상해파 뿐이었다. 다른 그룹은 물산장려운동에 비판적이었다. 심지어 국내 상해파 안에서도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물산장려운동을 지지하는 상해파 우익과 그렇지 않은 장덕수 상해파 좌익이 분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세력은 물산장려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논쟁은 1923년 2월부터 신문과 잡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상해파 우익인 나경석이나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이순탁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사회진화에

는 생산력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데다가 사회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력이 요구되므로 조선인의 산업기관을 발달시켜야 하고 조선인은 유산계급이든 무산계급이든 피식민 민족으로서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민족이 일치단결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생산력증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인 설태희 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장려를 비판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중산계급의 경제상 현상유지의 이기적 운동’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물산장려운동은 무산계급의 이해관계와는 동떨어진 자본가계급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판론자들은 설사 물산장려운동으로 조선인 산업이 발전한다 해도 무산계급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무산계급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생산력증대론에 대해서도 무산계급이 정치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 사회혁명에 조응하는 생산력을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자본가는 자본가일 뿐이므로 민족혁명 단계에서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물산장려운동이 한참 고조되던 1923년 3월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를 망라한 전조선청년당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산주의그룹 가운데서도 당시 청년운동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서울파였다. 대회는 일제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서울파가 비밀리에 채택한 결의안에는 “물산장려운동을 박멸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당시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은 급격하게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물산장려운동으로서는 시작과 동시에 ‘박멸’의 대상이 되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운동이 절정이던 1923년 초반에도 회원 수는 3,0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는 달리 물산장려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물산장려운동에 참가한 것은 주로 상공업자, 의사, 회사원, 교사 등이었다. 회원 가운데는 심지어 조선총독부 참여관, 중추원 참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여름 이후 침체상태에 빠졌다. 조선물산장려회도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25년 부흥총회가 열렸지만 부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운동의 침체는 지속되었다. 1927년 민족협동전선 단체인 신간회가 출범할 때 조선물산장려회의 일부가 참여하기도 하고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부르주아 민족운동 계열이 당면의 획득 운동, 문화운동에 주력하면서 물산장려운동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끝내 조

선물산을 판매하는 소비조합과 조선물산을 제조하는 생산기관을 조선인의 힘으로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끝내 이룰 수 없었다. 1937년 2월 조선물산장려회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함으로써 물산장려운동은 막을 내렸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창립에서 해산에 이르는 15년 동안 선전활동(행렬·강연·신문지상 응원 등), 회원모집, 소비조합 설립, 기관지 발간(『산업계』, 『자활』, 『조선물산장려회보』, 『장산』, 『신조선』), 조선물산진열관 설립, 수공부 설치(1930년)를 통한 대생산기관 직접 경영, 산업진흥과 생산증대를 위한 공업자대회, 고려발명협회 조직(1928년)과 자영 간이사업 소개, 물산장려바자회(1928년 이후), 조선물산염매시(1931년 이후), 생활개선운동, 각종 통계 조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논의만 되었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실행에 옮겨진 경우에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다. 더욱이 정작 가시적인 활동도 물산장려운동이 세간의 주목을 끌던 1923년 무렵이 아니라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구와 최준례



홍 소 연
백범김구기념관 자료실장

홀로 이국땅에서 눈을 감다

1924년 1월 1일 중국 상해, 김의한·정정화 부부는 독립운동을 하는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홍구폐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입원한 백범의 아내 최준례를 병문안하기 위해서였다. 홍구지역은 일제의 힘이 미치는 곳이다. 특히 김의한에게는 위험한 곳이다.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가 운명 직전이라고 병실에 들여보내지 않으려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최준례는 얼굴에 핏기하나 없이 탈진해 말도하지 못했다. 운명 직전의 위중한 중에도 정신만은 똑똑하였다. ‘선생님께 오시라고 할까요?’ 묻자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위험한 홍구지역으로 남편을 오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올게요.’라는 말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백범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1919년 3월 백범은 혼자 상해로 망명하였다. 1920년 아내가 큰아들 인을 데리고 상해로 뒤따라왔다. 1922년에는 어머니도 중국으로 건너왔다. 가난하지만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해 둘째아들 신이 태어났다. 몸이 약한 아내는 신이를 낳고 채 회복되기 전에 계단에

서 실족하여 병을 얻었다. 치료비가 없었다. 무료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아내를 홍구폐병원으로 보냈다. 그것이 아내와 마지막 이별이 될 줄 몰랐다. 백범은 아내의 임종을 보러 가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진 뒤였다.

‘신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병문안 온 김구식 박사 부인 김순애 여사에게 최준례가 한 말이다. 젓 한번 제대로 먹여보지 못하고, 어쩌다 우유를 먹일 뿐 끓인 물에 설탕을 타 먹인 신이었다. 그나마 어머니가 홍구폐병원으로 온 뒤로는 할머니의 빈 젓을 물고야 잠이 들었다. 변변한 옷 한번 입혀보지 못한 신이가 보고 싶었다. 남편이, 큰아들 인이,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보고 싶다고 할 수 없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심정인들 오죽 하겠는가.



▲ 가족사진(1924년)
(왼쪽부터: 둘째아들 신, 김구, 어머니 광낙원, 큰 아들 인)

환갑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어린 두 아들을 두고 가야했다. 너무 어려 키우기 힘들니 신이는 고아원에 맡기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했다. 김순애 여사가 신이를 안고 병원으로 왔다. 그나마 신이를 볼 수 있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1월 4일 장례를 치르고 묘비를 세웠다. 《동아일보》 1924년 2월 18일 기사이다.

이 사진은 항자 보도한 바와 같이 사회를 위하여 무한한 고초와 분투하는 남편을 만나서, 남이 격지 못한 고생으로 간장을 녹이다가 몇 천리 밖인 다른 나라에서 이 세상을 떠난 김구(金九) 씨의 부인 최준례(崔遵禮) 여사의 무덤에 세운 빗돌이다. 이 비는 상해에 있는 동포들이 그의 사십 평생의 고적하고 간

난한 경우를 불쌍히 여기어 넉넉지 못한 주머니를 털어 돈을 모아서 세운 것인데, 조선어학자 김두봉(金斗奉) 씨가 지은 순 조선문의 비문으로 썼고, 이 빗돌 뒤에 있는 늙은 부인은 그의 시어머니 곽 씨(郭氏, 66)요, 모자 쓴 남자는 그 남편 김구(金九, 49) 씨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큰아들 김인(金仁, 7)이요, 왼편에 있는 아이는 그 둘째아들 김신(金信, 3)이다. 늙은 시모, 어린 자손, 더욱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랑하는 남편을 두고 죽을 때에 그 부인의 눈이 어찌 차마 감기었으랴! 쓸쓸한 타향에 가족을 두고 외로이 누운 그에게 이 빗돌만이 쓸쓸한 회포를 더욱 도울 뿐이다.

백범은 독립운동 기간 중에 혼례나 장례에 돈쓰는 것을 반대하였다. 형편도 어려웠지만, 능력이 된다면 독립운동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의 동포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집을 잃는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내의 장례도 검약하게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동지들이 아내가 백범으로 인해 고생을 한 것은 곧 나라 일에 공헌한 것이라 하며 돈을 모아 장례도 성대하게 지내고 묘비까지 세워주었다.

뜻에 맞아 선택한 사람

『백범일지』에 의하면 백범은 다섯 번 혼담이 있다가 여섯 번째에 결혼하였다. 백범이 네댓 살 때,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김순영이 취중에 함지박장사 김치경에게 8, 9세 된 딸이 있는 것을 알고, 농담같이 청혼을 하였다. 김치경은 승낙하였고 사주까지 보내왔다. 아버님이 그 아이를 종종 집에 데려왔다. 동네 아이들이 백범을 ‘함지박장수 사위’라고 놀려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심은 자식 혼인시키는 것이 유일한 일이 되었다. 백범의 부모님도 동학접주로 바뀐 19살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하지만 백범은 이 혼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뜻을 부모님께 한사코 말씀드렸다. 할 수 없이 아버님은 김치경에게 자식이 혼인을 원치 않는다고 혼약해제를 상의하였고, 그의 딸은 다른 곳으로 출가시키기로 하였다.

동학접주로 황해도 해주성 공격에 패한 백범은 동학을 토벌하던 안태훈 진사의 호의로 그 집에 머물면서 평생의 스승 고능선을 만났다. 고능선은 백범이 ‘범의 냄새도 풍기고 범의 소리도 질러서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할’ 인물임을 알아보고 무척이나 사랑하였다. 백범을 자신의 손녀와 혼인시키기를 원하였다. 백범은 청혼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무척 만족

하였다. 그런데 김치경이 찾아와 횡방을 놓았다. ‘첩이면 모를까 정실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혼사에 말썽을 부리면 돈푼거나 얻으려니 했던 것이다. 그때 김치경은 이미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로 한 상태였다. 일이 순조롭지 않음을 알고 ‘혼사는 단념하고 의리로만 선생님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매우 섭섭하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중에 작은아버지의 농사를 열심히 도우니, 작은아버지는 돈 200냥을 주면서 인근 상놈의 딸과 혼인하라고 하였다. 상놈의 딸은 고사하고 정승의 딸이라도 재물을 따지는 결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형님이 없으니 당연히 조카를 결혼시켜야한다고 생각한 작은아버지의 노여움을 샀다.

27살 되는 해 정월에 백범은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다니다가, 먼 친척 할머니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다. 삼십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할머니께 노총각 백범은 조건을 걸었다. ‘재물을 논하지 말 것. 상대자가 학식이 있을 것. 직접 상면하여 서로의 마음이 맞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상이 끝나면 혼인하기로 하였다. 손수 책을 만들어 약혼녀 여옥을 가르치려 먼 길을 다녔다. 아버지의 상이 끝나자 어머니는 혼례준비를 하였다. 여옥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장감(長感)이었는데 산중이라 약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병세가 위중한 중에도 반가워하던 여옥은 며칠 뒤에 죽었다. 백범은 여옥을 염습하여 안장하였다.

청년 교육운동가 최광옥이 도산 안창호의 동생 안신호를 소개하였다. 서로 마음이 맞아 약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혼인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얼마 전 도산이 미국으로 가면서 상해에 들렀을 때 양주삼에게 안신호와 결혼할 것을 권했었다. 양주삼은 아직 학생이라 학업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하필 안신호가 백범과 약혼하기로 마음먹은 직후 양주삼으로부터 학업을 마쳤으니 결혼 여부를 알려달라는 편지가 왔던 것이다. 안신호는 양손의 떡이라 두 사람 중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릴 수 없어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김성택과 혼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몹시 섭섭하였다.

애국계몽운동에 열심이던 백범은 황해도 신천 사평동의 교회지도자인 양성척 소개로 최준례를 알게 되었다. 최준례는 서울사람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언니와 함께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언니가 제증원 의과생인 신창희와 결혼하고, 형부가 신천 사평동에 개업을 하자 준례는 어머니와 함께 언니부부를 따라와 사평동에 살고 있었다. 준례는 어려서 어머니가 정해준 혼처가 있었다. 하지만 뜻에 맞는 남자를 골라 자유롭게 결혼하겠다고 어머니의 명에 따르지 않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선교사들이 강제로 출가케 하려다가 준례의 항의로 실패하였다. 그 때 양성척이 백범에게 준례와 혼인할 의향을 물었던 것이다.

백범은 어려서 함지박장사 딸과의 혼담으로 고능선 선생의 손녀사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컸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안신호와 혼담도 그랬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정한 혼사로 인해 생긴 일들이었다. 조혼에 대한 폐해도 절감하고 있던 백범은 준례에게 동정심이 생겼다. 준례를 직접 만나 혼인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준례의 약혼자가 선교사에게 이를 고발하였고, 교회에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백범은 준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약혼을 하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교회는 백범에게 금지권고를 듣지 않는다고 책벌을 내렸으나 끝내 불복하였다. 교회가 조혼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악풍을 조장한다고 항의하였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혼인을 인정하고 책벌을 해제하였다. 최준례는 백범과 어려운 결혼을 하였다.

만장의 기염으로 호령

1911년 백범은 일제가 조작한 안악사건으로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15년형을 받고 4년 8개월 만에 가출옥하였다. 일제가 신문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였다. 첫째 가혹한 고문, 둘째 굶기, 셋째 우대하기다.

채찍과 몽둥이로 난타하기, 두 손을 등 뒤에 포개고 결박하여 천장에 매달아 질식시키고 냉수를 온몸에 끼얹어 숨이 돌아오게 하기, 화로에 쇠막대기를 준비하게 늘어놓아 별절계 달군 후 온몸을 함부로 지지기, 손가락 크기의 능목(菱木) 세 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무 양끝을 노끈으로 동여매기, 거꾸로 매단 후 콧구멍에 냉수 부어넣기 등등이다.

일제가 신문을 할 때에는 음식의 양을 보통 수인의 반으로 줄여 생명만 유지하게 한다. 온갖 고문으로 온전한 살가죽이라고는 없이 감방에 던져질 때 다른 사람들이 사식(私食)을 먹으면, 고깃국과 김치냄새가 코에 들어와 미칠 듯이 먹고 싶어진다. ‘아내가 젊으니 몸이라도 팔아서 좋은 음식을 들여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더러운 생각이 난다고 『백범일지』에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참기 힘든 것은 우대하는 것이다. 일제는 가혹한 고문과 굶기를 견딘 사람들을 우대하였다. 일본인만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는 조선인들이 필요한데 당신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점잖고 예의 있게 대우해주면 가혹한 고문과 굶기를 참아낸 사람도 그 술수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백범은 모두 여덟 번의 신문을 받았다. 여섯 번째까지 매번 정신을 잃은 후에야 유치장에

로 끌려왔다. 여덟 번째 신문 때였다.

‘토지를 사들인 지주가 논밭의 뽕우리들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백범은 ‘나를 논밭의 뽕우리들로 알고 파내려는 너희들의 노력보다 파내어지는 나의 고통이 더 심하니 내가 자결하는 것을 보라’며 기등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다. 백범은 15년형을 받았다. 1912년에 명치(明治)가 죽고, 1914년 명치 부인이 죽어 연달아 감형이 되었다. 곧 감옥을 나가게 되었다.

감옥에서 일제에게 인간으로 당하지 못할 학대와 욕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일제에게 순종하며 목숨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석회질이 섞인 뽕우리들이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지면, 평소 굳은 의지가 석회와 같이 바닷물에 녹아 버리는 것이었다.

백범도 세상에 나가는 데 대하여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만일 자신도 석회질이 섞인 뽕우리들이라면 만기 이전에 성결한 정신을 품은 채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석회가 섞이지 않은 뽕우리들이 되리라’는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구’(九)로, 호를 ‘백범’(白凡, 白丁凡夫)이라 고쳤다.

감옥 밖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고통이 있었다. 《신한민보》 1924년 2월 21일 기사다.

김구 씨 부인 최 여사의 장의, 파란 많은 망인의 일생 경력

상해 김구 씨의 부인 최준례 여사는 지난달 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의식은 동 4일 오후 2시에 법조계 하비로 공무국 묘지서 기독교식에 의지하여 목사 조상섭 씨의 사회로써 상해에 있는 남녀동포가 많이 모여서 엄숙하게 거행하였는데, 일동이 모두 깊은 느낌의 얼굴로써 지내었고, 윤기섭 씨가 설명한 역사 중에 김구 씨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15년의 징역선고를 받은 뒤에는 김구 씨가 가출옥이 되기 전 4년 동안에는 안악군에 있는 안신여학교에서 선생이 되어 약간의 봉급으로써 늙은 시모를 봉양하나 또한 넉넉지 못하여, 교수한 여가에는 친히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삼동의 얼음 같은 찬방을 녹이고, 소생의 어린 딸 하나와 함께 삼대의 여인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즐거움 없는 세월을 보내었다는 말에 대하여는 회장한 일동의 눈에 눈물이 비 오듯 하였다. 풍파와 고초를 많이 당하고 쉬지 아니하며 분투하는 남편을 다시 만난 뒤에도 가난살림을 하든 일이며, 이번에 최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김구 씨는 우리 민족

의 처지가 이와 같으니 극히 검소하게 상례를 지내려고 결심하였으나, 많은 동지들의 권고와 주선으로써 창피치 않은 장례를 거행하게 된 것이라더라.

종전에는 시어머니 곽낙원과 며느리 최준례 사이에 충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백범이 안악사건으로 감옥생활을 하는 5년 가까이 고부간에 서울과 황해도를 오가며 옥바라지를 하면서 일심동체가 되었다. 서울에서 지낼 때 최준례는 일제 토지국(土地局)이 운영하는 책 만드는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하기도 하였다. 황해도 안악에서는 안신학교 교사를 하면서 산에 올라 나무를 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종종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옥바라지하느라, 어린 딸과 어머니를 돌보느라, 서양여자가 공부시켜주겠다는 것을 못했다는 백범을 괴롭게 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늘 며느리 편을 열배백배 들었다. 고부간에 껍속말이 있으면 늘 백범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백범은 한 번도 집안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한 적이 없었다. 부부간에 싸움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최준례의 남편 김구



▲ 한 장 밖에 없는 최준례의 사진이다.(1921년) (왼쪽부터 : 김구, 큰아들 인, 최준례)

1945년 11월, 일제의 항복으로 환국하는 길에 백범은 상해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1948년 아들 신을 중국으로 보내 몇몇 분의 유골을 국내로 봉안하였다. 중경에서는 이동녕·차리석 선생과 어머니 곽낙원, 28살 꽃다운 나이에 죽은 큰아들 인의 유골을 찾아왔다. 상해에서는 아내의 유골을 찾아왔다. 어머니와 아내, 인을 정릉에 안장하였다.

1982년 세 분의 유골은 금곡으로 이장되었다. 백범 서거 50주년인 1999년에는 곽낙원 여사와 김인의 유골은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고, 최준례 여사의 유골은 효창원 백범 묘에 합장하였다. 75년 만에 임종을 앞둔 자신을 찾아오지 못했던 남편을 찾아온 것이다.

최준례는 1889년 3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열여섯에 백범과 결혼하여 서른여섯이던 1924년 1월 1일 이국땅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남편의 옥바라지와 망명생활을 빼면 십여 년에 불과한 삶이었다. 그 삶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일제에 쫓기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육신의 고통을 겪어야했던 시간이었다. 백범은 90여 년 전 최준례가 자신의 뜻에 맞아 선택한 사람이었다. 고능선 선생처럼 백범을 알아본 것일까. 백범의 아내 최준례가 아니라, 최준례의 남편 김구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



임재경
한겨레 前부사장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

이 글을 쓰는 임진년(2012년) 세밑 ‘일본 군국주의’라는 낱말의 느낌은 여느 때와 무척 다르다. 간지(干支)로 표기되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라 해도 임진왜란(1592년)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11월과 12월에 일본과 한국에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물들이 각기 수상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불길한 일이 일어난 때문이다.

4백20년 전, 임진의 해 일본에 새로 등장한 군사 정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조선 침략한 수괴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가 곧 근대적 의미의 군국주의 상징은 아니다. 사전에서 풀이하는 군국주의는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조직을 전쟁을 위해 활용하며, 군사력에 의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루려는 사고와 행동”인 까닭에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꼽자면 2차 세계대전 기간의 일본 고위 군인들일 터이다. 이를테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일본육군대장, 패전 시 내각총리대신)가 군국주의의 영락없는 전형이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찬 도조는 군 지휘관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와 행정의 명령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일은 유니폼을 입지 않은 문관 혹은 문민(文民) 가운데도 군국주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민 군국주의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밝혀 둘 것은 2012년 연말에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된 아베진소의 외조부가 바로 그런 예다. 이름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2차 세계대전 중 도조 히데키 밑에서 상공대신(商工大臣)을 지내고 패전 이후 A급 전범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 1950년대 말 미일안보조약을 추진한 일본우파의 내각총리대신이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회과학은 군국주의를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 여건이 위기에 봉착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국주의가 동원되는 경향을 주목한다. 1930년대 초의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심각한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국주의 풍조가 사회 전반에 정착한 사실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줄 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해하는 데 ‘경제 위기 결정론’의 틀에 얽매는 것은 금물이다. 경제 불황이 군국주의 대두의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민이 군주를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신분 양면에서 무술 기능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일본의 무사(사무라이) 계급이 정치를 주물렀던 것이다. 형식상의 군주(천황)체제가 존치되긴 하였으나 중세에서 명치유신(1865년)에 이르기까지 1천년 가까이 일본 통치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쇼군(將軍)들의 바쿠후(幕府)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불길한 일”이 일본군국주의를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된 동기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른바 ‘20년 복합불경기’에 속수무책의 일본 자민당이 2012년 11월 선거에서 무슨 묘수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일까. 보수를 표방하는 자민당보다 한 술 더 뜬 일본의 극우세력(이시하라 전 도쿄 지사 및 현 하시모토 오사카 시지사 등)이 군국주의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군가(軍歌) 가락에 풍악을 잡혀 열 패감에 빠져 있는 일본의 대중을 선동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 여기서 용기를 얻은 자민당의 아베는 선거운동 기간 중 헌법개정(전쟁포기를 규정한 이른바 평화 조항 제9조 삭제 등), 영토주권 강력 행사, 중군위안부의 사실인정 거부를 공공연하게 입에 담았던 것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법을 2007년 아베진소가 1차 내각 시에 이미 강행처리 한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보수우익이 평화주의 골격의 현행 헌법을 기회를 보아 일사천리로 폐기한다는 수순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구 소련사이의 동서냉전 시(1945-1981) 미국의 군사보호아래 경제발전을 꾀한 일본이 냉전 종식 이후 다시 군국주의로 국가 변모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 인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말할 때 옆에 아홉 덩달아 붙어 다니는 것이 1945이전의 독일 나치즘



이다.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원리를 철저하게 짓밟은 것은 말할 나위없고, 대규모의 전쟁을 자초한 점 등 일본과 독일 두 나라에는 공동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대미문의 독재자 히틀러는 참혹한 전쟁을 통해 인명을 살상한 것 외에 의도적으로 인종청소를 감행하여 수백만의 유대인을 살해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 공격적 대외정책을 채택하기 훨씬 전 군국주의적 사회풍조가 독일에 만연했던 역사적 배경역시 일본과 유사하다. 19세기 후반 당시 유럽의 패권자 제국주의 영-불과 맞선 빌헬름 제정(Wilhelm Kaiser)은 두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부와 군수산업위주의 중공업 경영자들의 지배하에 놓였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카이저 시대의 독일 군부는 ‘국가안의 국가’(der Staat in den Staat)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의 내부구조를 조망하면 전자는 일본의 해묵은 천황주의(天皇主義)를 정신적 지주로 삼으려 했던데 대해 후자는 나치당의 명칭 ‘국가사회주의당’(Nationalsozialismus Partei)이 암시하듯 구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사이비 사회주의 이념을 내걸었다. 멀리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을 풍미한 노동운동과 가까이는 1917년에 폭발한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의 재생불능 잡종이라면 어쩔지 모르겠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이 동시대에 공업생산력의 최성기(最盛期)를 맞아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이어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가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어찌 되었던 간에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연합국의 점령 하에서 타율적으로 과거(군국주의 및 나치체제) 청산의 길을 걸었던 것은 동일하나 청산의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랐다. 우선 일본의 경우는 중국침략으로부터 시작된 ‘20년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일본국왕)이 미국의 특별한 배려로 문책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것이다. 다음은 동일한 패전국이면서 연합국의 분할 지배에 놓인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고유 영토가 온존된 상태로 유지된 것이다. 동-서독이 별개 국가로 갈려 45년간 서로 대결 위치에 서야 했던 민족 분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패전국에 대한 응징 방법으로 전후 독일 식 분할 점령-별개 국가 설립방식이 패전국 일본에 적용되었더라면 북해도(北海道)는 옹당 소련의 점령 하에 들어가야 균형이 맞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책임과 과거 청산 내용에서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같은 A급 전범이 국정의 책임자로 등장하는 반동은 독일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분단 독일(서독)의 가장 오랫동안 수상직을 지낸 기독교민주당(CDU) 당수 콘라트 아데나워는 정치이념 스펙트럼으로 분류하자면 보수임에 틀림없으나 나치시대에 반 히틀러 노선으로 일관한 사람이다. 독일의 나치 청산 과정에서 일본의 교훈이 될 일은 반 나치활동을 위해 해외(노르웨이)망명을 서슴지

않았던 빌리 브란트가 사회민주당(SPD)의 깃발을 내걸고 분단 반공국가 서독에서 집권에 승리한 예다. 실제로 브란트가 정책면에서 사회주의 성과가 어느 수준인가는 별도의 논의 과제이나 그의 나치만행을 청산하고자 하는 자세는 인류의 미래에 위대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병합되었던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브란트 수상은 바르샤바 시내에 건립된 나치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던 것이다. 정치적 제스처? 천만에! 브란트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의 스케줄은 간단하게 위령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반 나치 망명투쟁시의 온갖 풍상을 겪은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거였다.

독일의 나치 청산은 폴란드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은 일로 끝나지 않았다. 독일정부는 전쟁기간 중 강제로 연행했던 점령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하여 물질 보상을 실시하였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임금을 당시의 구매력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고 있다. 반 세기가 지난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강제 취역의 사례가 제기되면 예외 없이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이 독일에는 확립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2차 대전 중, 연 인원 2백만명에 달하는 한국사람(조선인)을 징용이란 이름으로 일본 국내의 탄광, 군수공장, 그리고 침략지역(중국과 동남아)으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켰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현지에서 생명을 잃거나 불구의 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 연행되어 취역한 한국인의 존재자체를 불문에 부치고 보상 문제는 논외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 우익의 군국주의 책동이 현저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지난날의 일본 군국주의 청산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 천주교회의 항일독립운동



윤 선 자
전남대 사학과 교수

1. 천주교신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한국천주교회가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인물이 안중근이다. 안중근은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실력양성운동의 방법으로 국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자 교육운동과 식산운동에 한계를 느껴 무장투쟁으로 나아갔다. 물론 안중근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때부터 무장투쟁도 생각하고 있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력양성운동으로 전환하였지만, 정미칠조약을 계기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다.

1907년 7월 안중근은 진남포를 떠났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정책이 더욱 강화된 때문이었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교회책임자들, 즉 서양인 선교사들이 금지한 때문이었다. 안중근에게 교회와 민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교회와 민족은 하나였고, 따라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교회책임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교회는 민족이었고, 민족은 교회였다. 그는 교회도 민족도,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안중근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이토를 처단하고 사형당할 때까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

는 천주교신앙을 간직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처단 직후 안중근은 10월 30일의 첫 번째 신문에서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주교를 신앙한다고 대답하였다. 11월 14일의 2차 신문에서, 이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가슴에 십자성호를 그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12월 22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주교에서도 죄악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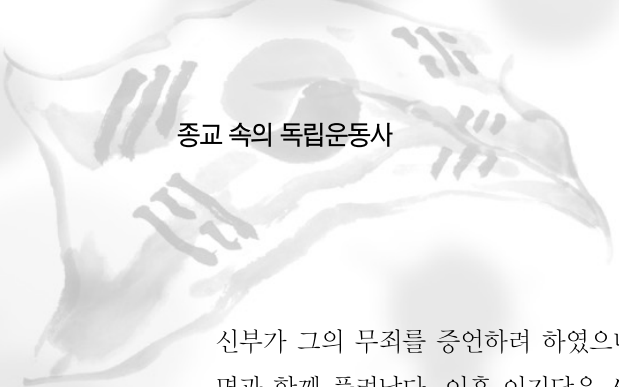
안중근은 이토 처단이 살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며, 천주교신앙 내지 교리의 측면에서도 옳은 행동이었다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1909년 12월 중순에 동생 정근·공근이 면회를 왔을 때 매일 기도하며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신부를 요청하였다. 교도소당국과 뮌헨 주교에게 자신의 영세신부인 빌렘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빌렘에게도 방문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1910년 3월 9일 교도소를 방문한 빌렘으로부터 고백성사를 받았고, 다음 날에는 빌렘이 집전한 미사에 복사를 하고 성체를 모셨다.

한국천주교회의 최고 통치권자 뮌헨 주교는 안중근의거가 일어난 10월 26일 저녁 소식을 듣고 통감부로 가서 조의를 표명하였다. 이토의 국장일에는 샤프트르성바오로회 수녀들이 만든 조화를 보냈고, 장례식장에 직접 갔다. 그리고 안중근과 안중근의 가족, 빌렘 신부의 요청을 받았지만 빌렘 신부의 여순감옥 방문을 불허하였다. 뮌헨은 안중근의 행동을 살인행위로 인식하였고, 안중근이 이토를 살해한 것은 이토를 오해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뮌헨은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유일한 최고 통치권자였으므로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뮌헨의 이러한 태도는 안중근의거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입장 표명이었다. 48명의 선교사들과 13명의 한국인 성직자들은 뮌헨의 의견에 복종하였다.

일제는 강점 직후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대규모로 검거하였다. 이른바 안악(安岳)사건인데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안명근(安明根)이었다. 그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자 남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할 계획 아래 신천·안악 등지의 한국인 부호와 유지들로부터 모금활동을 벌이다 천주교신자인 한순직(韓淳稷)·원행섭(元行燮)과 평양역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60명이 체포되었는데 천주교인으로 안명근이 종신징역형, 원행섭과 한순직이 징역 15년, 안명근의 매부인 최익형(崔益馨)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안악사건에 이어 이른바 ‘105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700여 명이 검거되어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중 용천인 이기당이 천주교인이었다. 김윤근 신부와 프랑스인 명(Meng)



신부가 그의 무죄를 증언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투옥 15개월만인 1913년 99명과 함께 풀려났다. 이후 이기당은 서간도 무송현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광제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약했으며, 통화현에 자치회를 조직하고 병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저항운동에 주력했다. 일제는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신의주성당의 서병익 신부는 이기당이 교회의 명을 어기고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하여 1916년 그를 파문, 송출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일제당국에 통고했다.

2. 한국인신자들의 3·1운동 참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활동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천주교회는 67명의 성직자(외국인선교사 45명, 한국인성직자 23명)와 88,000여 명의 신자수를 기록하였다. 선교사들과 한국인성직자들이 금지하였지만 한국인천주교신자들의 3·1운동 참여는 적지 않았다. 이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성직자와 신자들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신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동포들이 전개하는 만세운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3·1운동과 관련하여 천주교회에서 가장 먼저 행동을 표출한 곳은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였다. 3월 5일 저녁 약 60명의 신학생들은 신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교사 홍순일(洪淳一)을 통하여 대구에서 진행될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만세행렬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교장신부에게 알려져 준비한 유인물과 태극기를 압수당하였고, 두 신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만세운동 참가계획을 추궁받았다.

신학생들의 만세운동 참가계획을 보고받은 대구교구장 드망즈 주교는 성유스티노신학교를 방문하여 신학생들을 체육실에 집합시킨 후 만세운동 참가를 금지하였다. 만세운동에 참가한다면 신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신학생들은 주교에 대한 복종을 약속하였고 만세운동 참가는 무산되었다. 그렇다고 신학교 담장 밖에서 전 민족적으로 진행되는 만세운동으로부터 신학생들을 격리시킬 수는 없었다. 신학생들은 수업에 거의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신학교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수업을 계속할 경우 신학생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였는지 드망즈 주교는 5월 1일 조기방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사 홍순일을 파면하였다.

서울의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신학생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23일 밤,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나와 만세군중에 합류하였다. 이튿날 이를 보고받은 서울교구장 뫼텔 주교는 신학교로 달려갔다.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가한 신학교에 대한 징계조치로 그 해의 서품식을

연기하였고, 만세운동 주도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이와 같이 신학교들의 만세운동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신학생들은 성직자가 되는 길을 계속하려면 만세운동을 포기해야 했고, 만세운동에 참여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했다. 대부분의 신학생은 프랑스인 주교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몇몇 신학생만이 신학생 신분을 포기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3·1운동은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천주교신자들이 참가·주도한 만세운동을 지역별·날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천주교신자들의 지역별·날짜별 3·1운동 참가 현황

지 역		날 짜	만세운동 전체 규모	천주교신자의 만세 참가 및 주도 현황 / 참가 신자수 / 주도 신자	체포된 신자수
경 북	대구	3. 5	약 60명	주도/ 약 60명 / 유스티노신학교 신학생	
	대구	3. 8-	약 2,000명	주도/ ? / 김하정 및 김찬수	20여 명
황해도	해주	3. 10		참가/ ?	
	신천	4. 7	약 200명	주도/ ? / 김정두	1명
서 울		3. 23		참가/ ? / 용산예수성심신학교 신학생	
경기도	강화	3. 18	약 10,000명	참가/ ?	3명
	인천			참가/ ?	2명
	광주	3. 27	9명	주도/ 6명/ 김교영	6명
	용인	3. 27	약 100명	주도/ ? / 한영규와 김운식	2명
	수원	4. 3	약 2,000명	주도/ ? / 이순모	6명
	안성			주도/ ? / 김중묵	

출전 :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114쪽.

3·1운동에 천주교회는 교회적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신자들의 참여율도 저조하였다. 불참과 저조한 참여율은 한국천주교회가 보여준 민족적 한계였다. 한국천주교회는 일제 식민하라는 민족적 모순, 일제의 한국침략을 묵인한 교회적 모순이라는 이중 모순 아래 놓여 있었다. 식민구조의 모순으로 한국이 겪고 있었던 고통에, 신앙과 연결된 또 하나의 모순을 한국천주교회는 겪고 있었다.

3·1운동에 천주교회의 불참과 저조한 참여율은 주교를 정점으로 조직된 천주교회의 구

조, 이원론적인 신앙구조, 타종교와의 연대 부족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신자들이 개인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천주교회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천주교회의 국제적인 조직에 주목하였고, 임정이 상해에서 정착한 곳이 프랑스 조계였던 때문이다. 임정과 천주교회와의 연계에는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安定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정은 1919년 10월 15일 ‘천주교 동포여!’라는 제목의 포고를 발하였다. 천주교신자들도 한민족이니 민족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2천만 동포와 행동을 같이 해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황해도 장연본당의 장규섭(張奎燮)은 1919년 11월 장연에서 조직된 해서국민회(海西國民會)의 서무로 적십자회비 모집운동에 주력하였다. 1920년 7월 임정 지원을 목적으로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독립신문』 배포, 독립공채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1921년 5월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된 의용단원 90명 중에는 많은 천주교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용단은 천주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도영(韓道英)도 임정의 군자금을 모금하다 1920년 10월 16일 황해도 황주군 검이포에서 체포되었다. 공소회장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군자금 모금에는 천주교신자들이 협력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한도영은 군자금만 모금한 것이 아니라 임정 독립단 황해도 제3연단 제5소단 제1분단장의 직임을 맡아 무장투쟁에도 참여하였다. 안악사건으로 복역했던 최익형도 안정근으로부터 임정의 군자금 모금을 의뢰받고 안악의 천주교신자 나태섭(羅泰燮)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1921년 8월에 체포되어 평양에서 3년을 복역하고 출옥하였다.

평양 출신의 곽연성(郭然盛, 또는 宇明)은 1921년 국민대표회의 천주교 대표로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천주교신자들이 임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천주교회도 일제의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3. 간도 한국인신자들의 민족운동

1897년 한국인 천주교신자들로 교회가 설립되면서 간도는 영토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교회영역으로는 한국천주교회에 속하였다.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간도의 한국인 천주교신자들은 협동조합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해 자립과 협동심을 키워갔다. 천주교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던 많은 교과목들이 민족의식 고

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

간도천주교회와 독립운동과의 관계는 간도의 3·13 만세운동에서 문이 열렸다. 용정 장날인 1919년 3월 13일 용정성당의 정오 종소리와 함께 김영학(金永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도지역의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만세운동은 천주교를 비롯하여 북간도지역의 독립운동지도자들이 참여한 조선독립의사회가 주관하였다. 천주교신자촌인 대교동의 교향학교 학생들도 3만여 명이 함께 이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6일에는 장백현의 천주교신자 30여 명이 압록강 대안의 해산에 있는 일본경찰서를 습격하였다.

3·13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간도천주교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간도천주교회를 신앙인 집단이 아니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일제는 간도의 천주교신자들 중에는 간민회에 가입한 이들도 있는 점으로 보아 매일 성향이 점차 농후해졌다고 분석하였다. 3·13 만세운동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신자들 중 유력인사를 포섭하여 회유한다면 천주교정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은 28개 공소와 수천명의 신자수를 헤아리는 천주교신자들 중에는 안중근과 같은 무명의사가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임정은 1920년 5월 17일 안정근과 왕삼덕(王三德)을 간도에 파견, 독립운동단체들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1920년 7월 1일 연합회의에 참석한 9개의 독립군 단체 중 의민단·국민회·신민단 등 3개 단체는 천주교신자들이 참여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이는 간도천주교회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왕삼덕은 의민단에 대해 “200명의 군인과 200정의 군총(軍銃), 간부는 방우룡(方雨龍)·김연군(金演君), 설립된 지 일천하며 국민회(군)와 연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색채로 “천주교인파(天主教人派)”라고 기록하였다. 일제자료에도 의민단의 무장병력은 300명, 소총은 400정, 권총 50정, 수류탄 480개로 기록되어 있다. 의민단은 왕청현 춘화향 알하하에 본부가 있었으며, 동서남북 및 중부에 지부가 있었고, 단장은 방우룡이었다. 의민단은 대한신민단·대한광복단·대한국민회 등과 연합하여 북로사령부를 구성하였고, 홍범도·김좌진이 이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간도의 천주교신자들은 왕청현 춘화사 석현(汪淸縣 春華社 石峴)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신민단(新民團)에도 참여하였다. 신민단의 단원은 300명이었는데 훈춘의 신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일제의 첩보자료들이 계속 감시·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에 대한 간도신자들의 인식과 활동은 한국 내 천주교회와는 사정이 달랐다. 신자들은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신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신앙을 소유하였으면서도 한국 내에서와는 달리 간도의 한국인신자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간도의 천주교신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활동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할 수 있었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인적·물적 기반이 될 천주교회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민족과 교회

한말 황무지개간을 반대했던 기도회, 서상돈과 『경향신문』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경상도 지역 김상태의 의병항쟁, 안중근의거, 그리고 일제강점하 안명근의 무관학교설립운동, 이기당의 병학교 설립운동, 3·1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신자들의 만세운동, 임정에 참여한 천주교성직자의 활동, 간도천주교회의 민족운동, 의민단 등이 천주교회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관시킨다.

교회의 통치권이 금지하였지만, 한국인성직자와 한국인신자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은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꺼이 민족을 위해 투신하였던 의로운 행동이었다. 종교는 보편성을 추구하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천주교회의 실질적 선교활동은 지역성과 시간성을 갖는다. 어느 지역이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 어느 시기에나 마찬가지인 보편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성은 지역성과 시간성을 충분히 고려한 위에 정립될 수 있다.

민족의 가치와 요구는 보편적인 선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그것이 합당할 경우 교회는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각 지역, 각 민족의 특수성을 천주교회의 보편성 안에서 수용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타당성이 입증되는 지역과 민족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이다. 한말·일제강점하 한국천주교회가 전개한 민족운동은 교회통치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개 신자 차원에서였다. 통치권자들은 극력 반대하였지만, 한국인신자들은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천주교회의 구조상 통치권 차원에서 민족운동 전개는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인성직자도 한국인신자도 한국인으로서의 물론 천주교신자로서 민족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한국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개개 신자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천주교신자 모두를 '교회'로 범주화하는 교회론에서 한국천주교회의 한국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진정한 방법

- 독립기념관 임시정부실에서 느낀 울분 -



육 철 희
신시민운동연합의장

2012년 10월 20일 오후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남도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하기 위한 첫 목적지가 독립기념관이었다.

독립기념관의 임시정부 전시실을 새롭게 꾸몄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직접 둘러보기로 한 것이다.

오전에 독립기념관으로 먼저 출발한 이봉원 회장(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들어선 시간이 오후 3시를 조금 넘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독립기념관에는 가족단위나 단체로 독립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부지런히 걸어 6전시관의 임시정부 전시실을 찾았다.

일행과 만나 임시정부 전시실을 둘러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게 뭐야? 새롭게 꾸민 것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느낌이었다.

임시정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전시한다고 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임시정부 관련 전시내용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했던 이봉원 회장과 우리 일행의 발 걸음에는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가기 전에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독립기념관을 갈 때마다 느꼈던 실망과 아쉬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새로 바뀌놓은 전시내용은 그 작은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중국 내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를 샅샅이 찾아다니며 기록하고 책자로도 펴내신 이봉원 회장은 실망을 넘어 어이없어 하셨다.

전에 전시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으나 아예 전시 내용을 바꿔놓아 비교해서 확인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바뀐 임시정부 전시실은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에 너무나 부족하였다.

임시정부요인들의 밀랍인형 배치는 기준 시기도 구분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모아 놓아 웅색해 보일 뿐 아니라 임시정부 27년간의 역사와 요인들의 면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허탈한 기분으로 독립기념관을 나온 일행은 가까이 있는 석오 이동녕 선생의 생가를 찾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과 주석을 지내신 분의 생가는 독립기념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그 동안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2008년에 찾았을 때만해도 길이 좁고 생가 주변도 정리가 되지 않아 을씨년스러웠는데, 그 후 들어가는 길도 넓히고 생가 주변을 정리하여 기념관도 만들어졌다고 해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생가에 도착하니 크지는 않지만 기념관도 있고 큰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기념관에 들어가 이동녕 선생 흉상 앞에서 인사를 하고 전시실에 들어서니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이동녕 선생을 만나게 되는 영상물이 인상적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거쳐 이동녕 선생을 만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한 전시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동녕 선생의 일대기와 1940년 돌아가실 때까지 임시정부에서의 활동내용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산만하게 전시되어있던 독립기념관의 임시정부 전시실보다 임시정부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생가와 생가주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동녕 선생의 상을 만들어 놓아 함께 앉아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어있었다.

대규모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임시정부 27년 역사를 이해하기에 부족했던 독립기념관에서의 불충분했던 것이 이동녕 선생의 기념관에서 어느 정도 충족된 느낌이었다.

이동녕 생가를 나온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를 찾아 둘러보고, 유관순 열사가 고향에 내려와 아우내 장터에서의 만세시위를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렸던 매봉산도 올라가 보았다.

어린 나이에도 당차게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열사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첫날 일정을 마쳤다.

저녁 늦게 도착한 다른 일행들과 아우내 장터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밤 늦게까지 오늘 일정에서 느낀 점과 우리나라 역사교육과 교육현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튿날 21일에는 어제 밤 늦게 합류하여 이동녕 선생의 생가를 가보지 못한 일행과 함께 다시 한번 이동녕 선생의 기념관과 생가를 둘러서, 아산의 이순신 장군 묘소와 예산의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묘소와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마지막 일정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생가와 충의사 그리고 기념관을 찾았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충실했다.

의사께서 일찍이 교육사업과 농민운동 등을 통해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큰 뜻을 품고 장부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고 상해의 임시정부를 찾아간 것이 단순한 영웅심의 발로가 아니며, 김구

선생을 만나 마침내 홍구공원 의거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다만 김구 선생과의 만남과 홍구공원에서의 장면을 재현한 인형이나 그림의 표현상태가 사실적이지 않아 조금 우스워보인 것이 아쉬웠다.

어쨌든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탐방일정을 마쳤다.



▲ 독립기념관 제 6관에 전시된 임시정부요인들의 밀랍인형.

그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독립기념관을 찾아 우리역사에 대해 교육을 할 때도 느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새삼 무겁게 느꼈던 것은 우리 역사교육의 현주소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바탕이어야 할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 교육부와 관련기관들 그리고 정책 집행권자들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올바르게 서있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되짚어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친일반민족세력을 기반으로 정권을 쥐었던 이승만 정부가 최초의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친일반민족세력이 정권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지금껏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역사가 아직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친일반민족 뿌리는 너무 깊게 박혀있어서 역사의식이나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한 역사논리에 현혹되기도 하는 것이다.

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서 국민 모금운동으로 독립기념관을 만든 것 역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역사전공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지도 않고 대통령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술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름문제이다.

이름을 정할 때부터 ‘독립’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보다는 ‘항일역사기념관’이나 ‘광복기념관’ 등 더 걸맞은 이름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찾아 제 1전시관을 찾을 때마다 과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역사를 굳이 이곳에까지 전시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항일운동을 총망라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 독립기념관이라면 대한제국의 멸망에서 광복 때까지의 항일민족운동에만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모태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된 전시관에 정말 충실한 내용을 갖춰 전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애국선열들은 피와 눈물을 뿌리며 분투하여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쟁취하였다.

수 많은 독립운동단체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27년간 명맥을 이어 독립운동 대표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기한 것이다.

그런데 역대정부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현 정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실천적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194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려고 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이상한 집단이 나타나 항일독립선열들을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 단면인 것이다.

그 결과가 새롭게 꾸몄다고 하는 독립기념관 내의 임시정부 전시실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독립기념관의 운영과 관리 주체인 국가보훈처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현재의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한다.

198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로 했던 것이 어찌된 일인지 1990년부터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명문화했고 매년 기념식도 4월 11일에 해왔기 때문에 현재 4월 13일로 기념일을 정해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국군의 날을 현재의 6.25전쟁 시 국군이 3.8선을 넘는 날인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고쳐서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당연히 국군의 날도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이

창설한 날로 정해야 한다.

셋째, 경찰의 날은 미군정의 경무국이 창설된 1945년 10월 21일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원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군정의 초대 경무국장인 조병옥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찰총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인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경찰의 첫 번째 경찰총수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기본적인 것부터가 바로잡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전시실의 내용이 충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뿐인가 대한민국이 진정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면 임시정부 기념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에 상응함은 물론 임시정부로 대표되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국민들에게 계몽하여 나라와 민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기념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의미를 깊이 심어줄 수 없다.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몇몇 유관단체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것이 선열들의 유지를 바르게 계승하는 것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갖게 하여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선열들의 유지라고 생각한다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만의 형식적 행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활짝 열린 공간에서 일반인들이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의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어가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과 효창원 묘역의 독립선열묘역 조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가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창공원을 성역화하여 민족정기를 고취시킨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효창운동장의 재건축과 각종 이질적 시설물을 그대로 두면서 재단장하는 수준이라 민족

정기를 고취하겠다는 목적과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적이 있었다.

당시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효창운동장을 포함해서 독립선열 묘역 주위의 이질적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효창원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여 성역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효창원에 잠들어 계신 독립선열들은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임정 주석을 지내신 이동녕 선생과 차이석, 조성한 선생 또 대한남아의 기개를 전세계에 떨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일곱 분과 안중근 의사의 빈 묘가 모여져 있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고 항일독립투쟁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분들의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족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는 하면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결맞은 대우를 한 적이 없다.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도 잘못 정해서 기념하고 있고, 그나마 기념일에도 기껏 형식적인 기념식만 치르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기념관 한쪽 전시공간에서 홀대 받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2019년이면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전문에 명시한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2019년까지는 반드시 효창원 일대가 성역화되어 국립독립선열묘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18대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담당자들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효창원 독립선열묘역의 성역화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도 뜻을 하나로 모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 동안 우리가 독립선열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모습이 될 것이다.

2019년 효창원 독립선열묘역이 국립묘지로 성역화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건립되어 백범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①〉

‘평화의 소녀상’ 만든 김운성 · 김서경 부부 작가를 만나다



장 윤 희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제 8기 독립정신 답사단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정오 일본 대사관 앞.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치면서 강한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김복동 할머니(88)와 길원옥 할머니(84)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제 1,050회 수요집회를 시작하였다.

일명 ‘위안부 소녀상’으로 잘 알려진 ‘평화의 소녀상’은 누군가가 덮어 준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었다.

곳은 날씨였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살풀이 공연을 펼칠 무용단, 일본에서 응원하러 온 신일본여성회 회원들, 일반 시민들에 경찰 병력, 취재진까지 운집하면서 일대가 1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댔다.

일본의 정신대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 · 김서경 부부를 만났다.



▲ 제 1,050회 수요집회에서 만난 김운성 작가(오른쪽)와 김서경 작가 부부. 김서경 작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독립정신’을 들고 있다.

열과 혼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

2011년 여름 어느 날, 김운성(48) 작가는 정대협 관계자와 함께 “예술가로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란 대화를 나누면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힌다.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비석’이었다.

“비석은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조형물을 떠올렸어요. 꽃, 빈 의자, 고무신 두 쪽, 할머니 상... 고심 끝에 할머니 상을 만들려고 했지요. 더 깊이 생각해보니 할머니들께서 위안부 피해를 입을 때가 어린 소녀였다는 점에 착안해 소녀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난 동료이자 아내인 김서경(47) 작가가 표현하기 어려웠던 소녀상의 ‘표정’을 빚었다.

김서경 작가는 “당시의 가장 한국적인 모습, 한국 소녀의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엄숙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소녀의 앳된 모습과 숙연한 표정이 공존하도록 노력했어요. 소녀상 표정을 만들고 큰절까지 올릴 정도였지요.”

6개월에 걸쳐 청동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완성됐다.

소녀상을 다 만들었다는 기쁨도 잠시, 두 작가는 ‘이 조각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 들었다.

“이 조각상을 세우거나 할 수 있을까” “철거되지는 않을까”란 걱정이 뒤섞였지만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7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제 1,000회를 맞이하는 이날, 해가 뜨기 전이라 아직 세상은 깜깜했다.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이른 아침에 세우려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대사관 앞에 일본 기자들 수 십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한국기자는 없더군요.”

소녀상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어둠을 뚫는 플래시 불빛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올랐다.

일본 아침 뉴스에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일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다.

소녀상 설치 일주일 뒤인 21일, 김운성 작가는 날씨가 추워지고 성탄절이 다가오자 모자라도 씌우려고 소녀상을 찾아간다.



▲ 제 1,050회 수요집회

그런데 이미 소녀상 머리에는 모자가 얹어있고, 목에는 목도리까지 둘러 있었다. 지금도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이름 모를 시민들의 우비와 목도리, 신발이 평화의 소녀상을 따뜻하게 해준다.

김운성 작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이 큰 힘”이라고 뿌듯해했다.

2012년 12월 14일 소녀상 설치 1주년

어둠을 뚫고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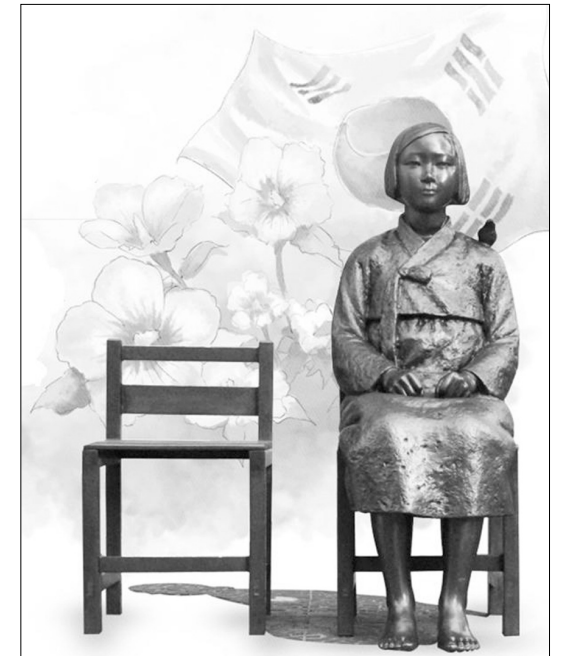
김운성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상의 관심을 받을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 “아직까지 일본 대사관이 무반응으로 일관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측에서 알면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는 묵묵부답에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당했으니까요. 일본의 우경화 태도는 늘 그래왔는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면 또 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산시 초청 순회전시를 마친 상태다. 현재 미국 미시간주의 최대도시 디트로이트 인근에도 똑같은 소녀상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운성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을 향해 응시하는 형태”라며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소녀상이 계속 일본을 쳐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 평화의 소녀상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김 찬 수
동원고등학교 역사 교사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20년째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옳고 그름이 제대로 된 정의가 바로선 나라를 건설했어야 할 제1공화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고 변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불명예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신 지 50년 반세기가 지난 시점이고, 21세기에 미래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역사에 무언가 잘잘못을 따질 필요성이 있기에 당당하게 편지를 올립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보다는 역사의 옳고 그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몇 말씀을 올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6.25 때 달랑 편지 한 장으로 대한민국의 군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경우를 되돌아 보건데, 편지라는 형식의 가벼운 글도 쓰는 위치에 따라 엄청난 역사적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며 당신은 ‘참 편하게 대통령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방된 이후의 당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의 여러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게 많으나, 해방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가르치다보니 무언가 당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잘못 놓는 바람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집은 항상 삐걱거리고 흔들립니다. 더 높은 큰 집을 짓고 싶으면 다시 한 번 주춧돌을 보강하는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당신께서 친일파들과 손잡지 않고 제대로 친일청산을 했더라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했더라면, 또 장기집권을 획책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했더라면, 한국 전쟁에 제대로 대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한 헌법 무너뜨리기, 1인 독재 지배체제, 각종 권력 비리 등등 해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은, 이후로도 관행처럼 수십 년을 이어져 당신이 물려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바로잡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정치에 이용하며 키워 놓은 친일파 후손들이 당신을 그렇게 추종하면서, 당신의 과거를 이렇게 다시 들추게끔 당신을 현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신 추종자들은 당신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려하지만, 오히려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신을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해방된 조국을 당신은 또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친일파들은 당신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고 하지만, 결국 당신이 주장한 ‘반공’은 당신 권력을 위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로 몰고, 친일 세력들을 반공주의자로 둔갑시켜 미국의 앞잡이로 만듦으로써 민족정기가 훼손되었습니다.

더욱, 몽양 여운형과 고하 송진우 암살에 이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은 대통령인 당신에게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백범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를 당신이 비호해서 호의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안두희도 늙은 몸으로 당신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영원히 당신은 암살자를 비호한 파렴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 4.19 혁명 후, 기뻐하는 시민들

당신은 또 민족 분단의 책임도 면치 못합니다. 당신은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항상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정말 북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허무맹랑한 과장은 결국 점심은 대전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임감은 있으셨나요? 제대로 전쟁을 막으려고 했다면 전쟁에 제대로 대비를 했어야 했지요. 전쟁을 억제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어야지요. 결국 김일성에게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동족상잔의 6.25는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수 백 만의 군인과 민간인의 죽음은 이후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남북 사이의 중요성이 계속되어 '친북', '중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1992년 소련이 붕괴되어 공산주의가 사실상 지구상에서 의미 없게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당신은 전쟁 중에는 한강다리 폭파로 수많은 피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수 천 명을 죽게 한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등 차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역겨운 사건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또 어떠했을까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3.15 부정



▲ 망명지 하와이에서 병석에 누운 이승만

선거 등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세계인들에게 낯부끄러운 짓들을 너무나 쉽게 했지요.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면 빨갱이 소행 운운 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았지요. 3.15 부정선거를 몰랐다고 발뺌하셨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모르셨다면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이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지요?

죽산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평화통일'이 당신의 '북진통일'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 살인을 저지르셨네요. 당신은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인물이었네요.

정리해보니 당신은 역사적으로 정말 잘 한 게 하나도 없는 국가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부끄러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끼친 당신의 해악 중에 최악은 물론 3.15 부정선거와 독재이지만, 저는 민족정기 차원에서 친일 세력을 두둔했다는 것이 최고로 나쁜 것이었다고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매국 행위자들도 벌 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지금 21세기의 세계 독재자들의 말로와 비교해 보면 하와이로 망명하여 쓸쓸하게 최후를 맞은 것도 당신에게는 행운인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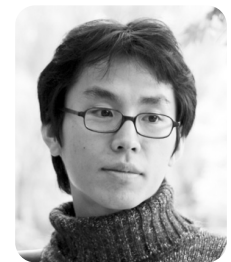
역사에는 준엄하게 다 기록됩니다. 역사가 바로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잘못들이

철저하게 밝혀지고,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질 것입니다. 저승에서나마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11월 어느 날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 부분을
20년째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한 역사교사 올림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국적 노스탤지어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영화 <그랜토리노>(2008)의 마지막 장면, 이웃의 어린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연기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봤을 때, 관객들은 그 노쇠한 모습을 앞으로 더 이상은 스크린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고집스럽고 과묵하게 늙어버렸지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했던 그 배역은 영화 속의 인물로서도 완벽한 결말이었지만, 50여년에 가까운 영화 인생을 살아온 배우로서도 역시 훌륭한 마무리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로렌즈 감독의 데뷔작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Trouble With The Curve, 2012)에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의외였다. 그리고 혹자는 이 영화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팬들을 위한 보너스트랙이라고 말할 만큼, 이 영화와 새로운 감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이 노장 배우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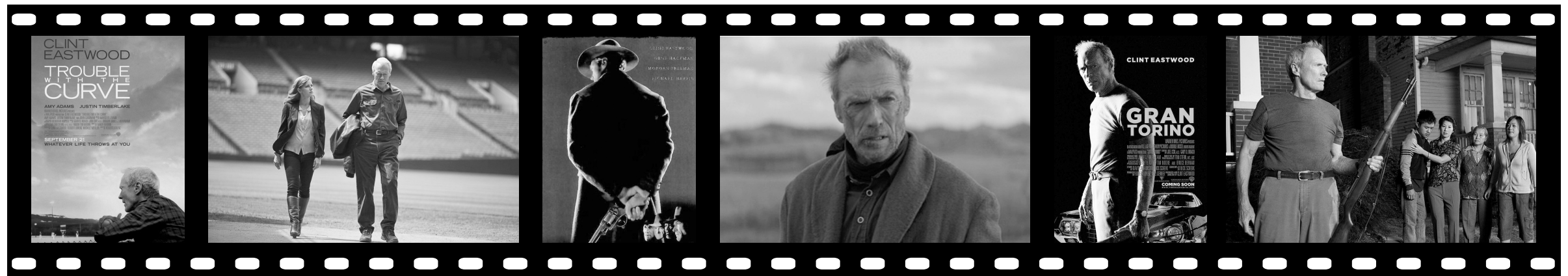
결국 쉽게 그의 은퇴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하면서, 이 새로운 영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의 영화들과 함께 세상을 바라봐왔던 시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는 이제 곧 은퇴를 생각하는 프로야구 스카우터를 주인공으로 한다. 오랫동안 능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해냈던 전설적인 스카우터인 그였지만 변해가는 프로야구 선수시장의 현실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문제가 고민이다. 그에게는 유일한 혈육으로서 딸이 있지만 부인을 잃고 일찍 독립시킨 탓에 어색한 관계로만 지내고 있을 뿐이다. 영화는 그가 선수발굴을 위해서 마지막 스카우트 여행을 떠나고, 그의 건강을 염려한 딸이 그와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로서 프로야구 비즈니스와 가족의 화해라는 주제 사이를 오가면서 진행된다.

영화의 연출을 담당한 로렌조 감독 스스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프로덕션에서 영화 기획과 제작을 오랜 기간 담당해서인지 이 영화 역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형식은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물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간다. 영화의 소재인 프로야구는 물론 미국의 가장 자연스러운 화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과거 프로야구의 기록과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의 지난 영광과 그 향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역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감정 때문이 아닐까 싶다. 주인공의 야구 인생과 배우의 영화 인생이 겹쳐지고, 마치 지나간 미국 영화사 속의 스타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여태껏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 완고한 노인의 모습 탓에 영화에 대해 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주인공의 건강이 다른 곳이 아닌 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결국 그가 서서히 빛을 잃어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관객은 이미 안타까워할 뿐이다. 영화 속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로서 언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와 같은 허울뿐인 이야기들에 대한 냉소에서 다소의 공감을 더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물론 영화의 결말은 관객들에게 그만큼의 위안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마친다.

기성세대에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영화의 카우보이의 이미지로서 강한 기억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야의 무법자>(1964)와 70년대의 <더티 해리>시리즈 무렵부터 이미 그는 배우이자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다. 이제껏 그가 출연한 작품도 50편이 넘지만, 그가 직접 연출한 영화 역시 20여 편이 넘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거대 시스템 틈새에서 수십 년간 자신만의 영화 제작사를 꾸려온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감독으로서 그를 관객들이 주목하게 만든 대표적인 영화는 1992년 <용서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늙고 잊혀져가는 한 총잡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영화는 서부개척시대에 대한 후일담임과 동시에 서부 영화라는 장르를 비평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퍼펙트 월드>(1993)는 한 탈옥수가 부모에게서 학대받던 한 소년을 만나 같이 미국을 가로지르는 로드무비로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1995)와 같은 애잔한 중년의 로맨스 등을 통해서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분명해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재즈 뮤지션 찰리 파커를 다룬 영화 <버드>(1988)나 한국전쟁에 대한 복잡한 기억이 언급된 영화 <승리의 전쟁 Heartbreak Ridge>(1986)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영화들을 만들어왔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그의 영화들은 더욱 원숙해졌고 매번 그의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경찰국가이자 범죄국가로서 미국의 양면적 초상을 그린 <미스틱 리버>(2003)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적 신화의 영락을 그린 <밀리언 달러 베이비>(2004),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획으로서 <아버지의 깃발>(2006)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2006)등이 있었다. 마침내 4년 전 <그랜토리노>(2008)에서 미국 교외지역의 소수민족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제는 그의 영화 경력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랜토리노>의 이야기에는 오랜 연륜과 함께 사회에 대한 따스한 성찰 이상이 담겨있었다.



▲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중에서

▲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 영화 <그랜토리노> 중에서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남아메리카 공화국 럭비팀의 우승 신화를 영화화한 <인빅터스>(2009)를 포함해서 이미 네 편 이상의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돌이켜 보건데 냉전시대를 풍자적으로 회상하는 SF물<스페이스 카우보이>(2004)나 사후세계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 <히어애프터>(2010) 외에도 이미 예전부터 부두적인 분위기의 판타지물 <미드나잇 가든>(1997) 이나 서커스 코미디물인 <브론코 빌리>(1980) 등과 같이, 관객들이 생각하는 고정된 이미지 이상으로 다양한 모습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오랜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국을 바라보는 원숙해져가는 시선이 아닐까 싶다. 서부 시대나 2차 대전, 냉전시대의 우주개발과 아메리칸 드림, 범죄와의 전쟁, 프로야구와 이민자 2세대 등 그가 다루는 영화의 소재들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미국적인 아이콘들이었다. 이미 흔하거나 진부해진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통해 서서히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현실의 풍경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할리우드라는 꿈의 공장에서 인생을 살아온 클린트 이스트우드가기에 미국이라는 위대한 꿈과 어두운 그림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시선에는 노스텔지어의 향수와 함께 안타까움의 회환이 묻어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단지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머물며 현실을 관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한 믿음은 곧 기회의 땅으로서 미국을 계속해서 지켜낸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랜토리노>와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결말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즉,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쉽게 부정하거나 버릴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에게도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보여주는 황혼의 노스텔지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로서도 알려져 있다. 할리우드의 많은 배우와 감독들이 자신을 진보적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의외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면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아름다운 보수의 얼굴에 꼭 어울리지 않는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도 세평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영화 작업들을 볼 때, 선불리 그의 은퇴나 차기작을 예측하기 보다는 우리 역시 그의 계속되는 영화들을 꾸준히 기다려 볼 일이다. 

빛창으로 다구찌 도지사 혼쫓낸 제주 해녀 “부춘화”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물질하던 옷 벗어 말리며
가슴 저 밑바닥 속
한 줌 한을 꺼내 말리던
불턱에 저울바람이 일고 있소

비바람 눈보라 치는 날
무자맥질 숨비소리 내뱉으며
거친 바닷속 헤매며 따 올린 처녀의 꿈

짓밟고 착취하며
검은 마수의 손 뻗치려던 도지사 다구찌 놈
보란 듯이 빛창으로 혼쫓내던
세화리 장터의 억척 여인이여!

그대의 분노로
저들의 야수는 꺾이었고
그대의 피 흘림으로
조국 광복은 한발 앞서 이뤄졌나니

평화의 섬 제주를 찾는 이들이여!
세화민속오일장 한 접시 회 마주하고
부디 말해주소
해녀 부춘화의 간담 서늘한 애국 이야기를!

*불턱: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모닥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말리는 곳

*숨비소리: 해녀들이 작업하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호오이’ 하며 길게 내쉬는 숨소리

*빗창: 전복채취 때 쓰는 쇠갈고리

부춘화(夫春花, 1908.4.6-1995. 2.24)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항일운동 가운데 여성운동과 어민투쟁의 측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해녀 항일운동사건의 주동자인 부춘화 여사는 1908년 구좌읍 하도리에서 태어나 15살 때부터 물질을 배웠다. 낮에는 힘든 물질을 하면서도 밤이면 하도 사립보통학교의 야학부에 들어가 세화리 출신 부대현 선생과 하도 출신 김순중, 오문규 선생으로부터 민족의식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 동안 민족 자주정신을 싹 틔웠는데 1931년 5월 일제에 의한 해녀 착취가 극에 달하자 이를 저지 하고자 해녀들을 단결시켜 일제와 투쟁을 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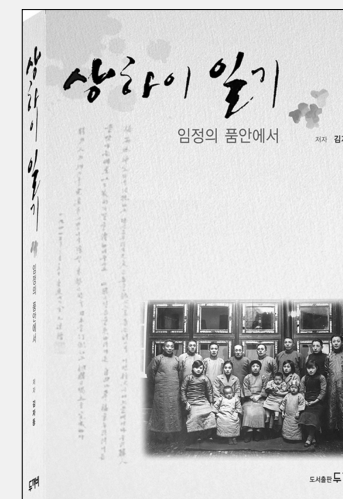
연약한 여성으로서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해녀로서 악독한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1932년 1월 26일 부춘화 여사는 해녀 1,500여 명을 동원하여 검속 경관대를 습격하여 무장경관대에 격렬한 항일투쟁을 하였다.

부춘화 애국지사는 김옥련 애국지사와 함께 2003년 8월 15일에 ‘건국훈장포장’을 추서 받았는데 이는 제주잠녀항쟁이 항일투쟁이었음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크게 기뻐했다.



상하이 일기 - 임정의 품 안에서 (김자동 지음/두꺼비 출판사 펴냄)

서 평 : 김 삼 응 (前 독립기념관 관장)



돈의(惇義)김자동 선생이 회고록 『임정의 품안에서 - 상하이 일기』(도서출판 두꺼비)를 펴냈다. 429쪽에 이르는 넉넉한 분량과 함께, 저자가 듣고 보고 겪은 근현대사가 오롯이 담겼다.

책은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 『한겨레』에 ‘길을 찾아서’ 시리즈로 연재했던 것을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제목대로 ‘임정의 품안에서’ 태어난 저자의 가족사와 더불어 독립운동사,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치사, 중국혁명사, 해방정국의 실상 등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사(正史)와 비사(秘史)를 함께 담고, 우리 독립운동사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목도 적지 않다. 한 권의 회고록에서 이처럼 종으로는 1세기, 횡

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열강의 속사정까지 파헤친 저서는 찾기 쉽지 않다.

젊은 시절 언론계에 종사했던 까닭에 문장도 간결하고 깔끔하여, 일반 독자들이 망국전후, 독립운동, 국제정치, 해방 전·후사를 읽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다. 저자의 기록치 않는 연륜과 경륜의 산물이다.

저자 김자동 선생의 가족사는 웬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할아버지, 부모, 본인,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4대에 걸쳐 구국운동, 독립운동, 민족운동, 노동운동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줄기차게 전개한 가문이다.

언론에서 가끔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고관대작이나 부자를 배출하는 ‘명가(名家)’의 수준이 아니라, 민족사의 ‘정맥(正脈)’을 잇는 가문인 까닭이다.

이 책에서도 기술한대로 할아버지 동농 김가진 선생은 구한말 고관출신으로 나라가 망하자 1919년 4월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을 창설, 총재로 있으면서 제2독립운동을 추진하고, 고종의 아들 이강의 상하이 망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무장투쟁 단



체인 북간도군정서의 고문에 추대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지도하였다.

아버지 김의한 선생은 부친과 함께 망명하여 임시정부 의정원의원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머느리 정정화 여사는 ‘임시정부의 살림꾼’이란 별칭을 들을 만큼 여섯 차례나 밀입국하면서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의 살림을 꾸렸다. 그런가 하면 동농의 손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김자동 선생은 1928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선대의 뜻을 이어 어린 나이에 항일투쟁에 힘을 보탰다. 동농의 증손들도 군사독재시대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동농의 DNA가 4대에까지 이어진 셈이다.

책은 동농의 <조선민족대동단>의 창설부터 임시정부·한인애국단·중국홍군의 북벌·내전·시안사변·5천Km 피난길·광복군창설·제2차 세계대전·카이로선언 배경·이승만의 반민족적 행위·안중근 의사의 유족 등 독립운동가 유족 이야기·해방 직전의 임정과 국제정세·임정의 환국·해방정국·5.10선거 속사정·정부수립·이승만 독재·6.25전쟁 전후 상황·여운형, 김구 암살 배후·국회프락치사건·미군부대 취직·부친 납북·5.16쿠데타 뒤 공화당의 고위직 제의 등을 씨줄로 하여 각각 뒤 이야기와 비화가 날줄로 엮인다.

필자도 현대사연구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과 비사가 너무 많다. 더러는 흥미진진하고 더러는 현대사를 새로 써야할 대목도 적지 않다.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어릴 적에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던 독립 운동가들로부터 직접 들은 독립군 이야기, 할아버지 유해가 아직도 환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 우리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던 중국 단둥현 이룡양행 조지 쇼의 유족 찾기 제안 등, 놓치기 아까운 대목이 적지 않다.

저자가 이토록 독립운동사의 정사와 비사에 적통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까닭이다. 또한 제2차 대전 전후의 미국과 영국, 소련 등 추축국(樞軸國)들의 내막을 훤히 꿰는 것은 날 4년간의 언론사 주미 특파원 생활과,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크르프스카야의 『레닌의 회상』, 하수인의 『모택동 전기』,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을 번역하는 등의 역량 때문인 것 같다. 국제정세의 폭넓은 안목과 이해 없이는 이런 역작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더러 오류나 착오도 눈에 띈다. 예컨대 베트남 독립운동의 지도자 호치민이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무렵 축하 환송연을 베풀어주었다는 내용 등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자동 선생의 이번 저서는 가족사를 뛰어넘어,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 필수적인 주요 문헌이 될 역저라 하겠다.

해방 뒤 저자가 『민족일보』등에서 활동한 내용과 반독재 투쟁에 참여해 온 사연 등 후속 작업이 기대된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평전

(김삼웅 지음/ 현암사 출판사 펴냄)



최근 개봉한 두 편의 영화는 1980년대 ‘어두웠던 시대의 대한민국’을 다루어 화제다.

바로 <남영동 1985>와 <26년>이다. 특히, <남영동 1985>의 고문장면은 관객들을 무거운 침묵과 분노로 이끌었다. 한편으로 이 영화는, 누구라도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실제 겪은 현실의 인물이 바로 김근태라는 사실을,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알리는 역할을 해냈다. 故김근태. 이제 12월 30일이면 서거 1주기를 맞는 김근태는 아직도 ‘남은 자’들에게 호소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민주화의 길에 몸 바친 한 투사의 생애

『민주주의자 김근태 평전』은 일생을 ‘민주화의 길’에 바친 김근태의 삶을 조명한다.

김근태의 이력에는 두 가지의 굵직한 줄기가 있다. 민주화 운동가의 이력과 정치인의 이력.

1994년 새민주당의 부총재로 ‘야당 입당’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김근태는 철저한 민주화 운동가였고, 그 변화 세력의 선봉장이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태어나 전쟁통에 자랐고, 이어 박정희의 쿠데타를 보았으며 유신정국에 살았다. 자신의 신변을 온통 강제하던 긴급조치 9호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전두환의 신군부 일당이 광주를 피로 몰들어버린다. 이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 의장까지 맡는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도 이미 그랬지만,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구속의 삶’을 이어간다.

1985년, 그 ‘구속의 삶’에 더 큰 비극이 닥친다. 김근태는 남영동에 끌려가 생사를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고 몸은 모조리 망가져버린다. 하지만 청년기 후로 쭉 품어온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진다.



198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년 10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낸 뒤, 다시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을 창설에 참여하여 민주화 운동의 선봉 자리로 돌아오지만, 다음 해 또 2년간의 구속이 그를 기다린다.

김영삼으로부터 총선 출마 권유를 받기도 했고, 김대중으로부터도 신민당 부총재직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김근태는 1990년대 중반 스스로 말하길 ‘네루의 길’을 가기로 하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다. 그의 정치인 생활은 ‘간디의 길’에서 “민주대연합”을 소명으로 삼았던 성품처럼,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에 맞서는 투쟁의 연장이었다.

“간디가 가는 길이 있고, 네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재야운동은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길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사회운동의 길은 간디의 길이고, 정치운동의 길은 네루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은 서로 다르지만 지원하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이 평전은 책의 제목처럼, 김근태는 어느 길을 걷든 어느 노선에 있든 ‘민주주의자 김근태’로서 한결 같았다는 점을 그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따듯한 인간, 정직한 인간.

인간 존엄의 가치에 헌신한 인간 김근태를 되살려낸 최초의 평전

저자 김삼웅은, 김근태의 삶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인간의 존엄’을 꼽는다.

포악한 군사독재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데 헌신한 김근태가 추구한 궁극의 가치,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실로 평전이 기록하는 김근태의 생애는 그 자체로 ‘존엄한 인간’의 본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이의 존엄을 위해 싸운 한 민주주의자가 새긴 그 ‘희망’을 성찰하게 한다.

우리에게 김근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은 ‘인간 존엄을 말살한 포악한 현실’과 힘차게 맞서는 일로서도 의미 있는 것이다.

김근태와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평생을 헌신한 또 한 사람의 ‘민주주의자’인 부인 인재근 여사(現국회의원)는 평전 출간을 기념하며 간곡한 말을 덧붙였다.

“.....김근태를 기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망각’에 대한 투쟁이 권력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온갖 망언들은 과거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발이고, 권력투쟁의 일부입니다. 화해와 망각은 다릅니다.

가장 또렷한 기억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인재근 국회의원, ‘추천의 말’에서





장물 바구니 -정수장학회의 진실

(한홍구 지음/돌아온 山 출판사 펴냄)



무덤에 들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역사’로서 정수장학회의 모든 것!

박정희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이토록 생생한 기록과 증언이라면 정수장학회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의 캐비닛이었다.

현대사학자 한홍구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제 대중이 그 캐비닛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부일장학회를 빼앗은 쿠데타 세력은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네다바이’ 시킨 뒤 ‘언론 3사’를 바구니에 넣고 키워왔다. <장물 바구니> 이름은 정수장학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정수장학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홍구 교수는 당시 조사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증언, 발굴을 통해 정수장학회를 처음으로 ‘진실의 바구니’에 담았다. 저자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 공대위(독재유산 재단 법인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권의 기본성격과 한국 언론사를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정수장학회는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밀봉된 의혹으로 남아 있다. 저자는 그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역사의 현재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역사’로서 이 책을 시대와 대중 앞에 내놓고 있다.

<장물 바구니>를 통해 독자는 정수장학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뿌리에서

부터 알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술한 인간 군상들의 움직임을 통해 강탈 과정과 이를 재구성하는 유신세력 내부의 갈등 등에서 ‘삼국지’ 같은 흥미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박정희와 김지태, 황용주는 물론, 5.16쿠데타 당시 중앙정보부 사람들의 김지태를 두고 벌이는 충성 알력,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5.16장학회에 대한 김대중의 공격, 재벌들이 어떻게 5.16장학회에 가담을 하고, 박정희 사후 전두환 군부에 의한 지분 재정리, 오늘날 MBC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고 있다.

책은 박정희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이 증언과 내용이라면 정수장학회에 대한 견해를 지금과는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할 만큼 생생한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82장)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장물 바구니>는 한홍구 특유의 격조 있는 입말(구어체)로 기술되고 있다.

우당 이회영 선생 80주기 추모식 및 장학금 전달식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도 마다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우당 이회영 선생 80주기 추모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1월 17일(토)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당기념사업회 회장 홍일식, (재)우당장학회 이사장 이종찬, 손주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 : 추모식 및 장학금 전달식, 2부 : 묘지참배(애국지사 묘역-150호), 3부 : 추모 다과회로 진행되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일가는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지배를 당하게 되자 무장병력을 키워 국제정세에 맞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만주지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독립정신 산악회 정기산행

지난 11월 24일(토), 북한산에서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헌)의 제 50차 정기산행이자 올해 마지막 산행이 있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독립정신 산악회 2013년도 첫 산행은 3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안내는 매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를 통해 공지된다.



조선민족대동단 起義 제 93주년 기념식 및 동농 김가진 선생 순국 90주기 기념 학술회의

지난 11월 27일(화)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조선민족대동단 起義 제 93주년 기념식 및 동농 김가진 선생 순국 90주기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하고 국가보훈처, 광복회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1부 : 조선민족대동단 起義 제 93주년 기념식, 2부 :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총회, 3부 : 동농 김가진 선생 순국 90주기 기념 학술회의로 진행되었다.

『한국현대사에서의 공화주의』라는 대 주제로 진행된 학술회의를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론을 모색한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보았다.

리영희재단 출범 기념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토크 콘서트



故리영희 선생의 올곧은 언론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립된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이 리영희 선생 2주기를 맞아 지난 12월 3일(월),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리영희 선생께서 군사독재정권이 언론에 물렸던 재갈을 거부하고 거리와 감옥을 오가셨듯이 언론노조 조합원인 기자, PD 등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늘의 리영희들의

복직의 소망을 담은 토크 콘서트에는 리영희 선생 부인 윤영자 여사의 인터뷰를 비롯한 해직 언론인들의 인터뷰와 좌담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고은 시인, 가수 권진원씨, 강희달림씨, 한겨레평화의 나무합창단이 시와 노래로 참여하였다.

운암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 향의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가 “서울시로부터 ‘운암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부지를 무상임대 받았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12월5일에 열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본회 김자동 회장은 운암임시정부기념관 명칭 문제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본회 김자동 회장은 운암 선생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분이 임시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념관 명칭에 ‘임시정부’를 포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확인 결과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측이 위촉한 고문 가운데 3명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측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였음을 강조하였다.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암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명칭 및 부지 확보 상태, 고문 위촉 등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하이 일기』(임정의 품안에서) 출판기념회

지난 12월 12일(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이며, 원로 언론인인 본회 돈의(惇義)김자동 회장의 『상하이 일기』(임정의 품안에서)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상하이 일기』(임정의 품안에서)는 김자동 회장이 2010년부터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길을 찾아서’를 취합, 보완하여 엮은 책으로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펼쳐지는 독립운동가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비극에 이르기까지의 긴 세월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 날 행사는 국악인 임진택 선생의 판소리 축하공연과 김삼웅 前독립기념관장과의 북 토크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그 외 각계각층의 인사와 애국지사 후손, 여러 독립운동 유관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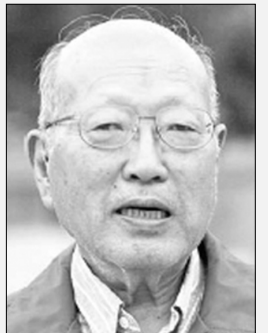


◆ 축하드립니다 ◆

1. 제 1회 단재상

수상자

- 언론상 : 임재경(前한겨레신문 부사장,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
- 민족상 : 채의진(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장,
본회 고문)



지난 12월 6일(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제 1회 단재상 수상자로 임재경(위) 前한겨레신문 부사장과 채의진(아래) 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장이 각각 언론상과 민족상에 선정되었다.

단재상은 기념사업회가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신 132돌을 맞아 제정한 것으로,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1986년부터 수여해온 같은 이름의 상과는 별개로, 근현대사의 진실 규명과 역사정의 실천에 헌신한 인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임재경 前한겨레신문 부사장은 민주주의 신장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문경 양민학살사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한명인 채의진 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신원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공로를 평가받았다.

2.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수상자

- 최우수상 미술부문 : 이정재(남서울대 교수, 본회 이사)



지난 12월 3일(월) 충무 아트홀에서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수상식

이 개최되었다.

서울문화투데이가 창간 1주년부터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감사와 존경, 격려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에서 본 회 이사인 이정재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제 11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

- 개인부문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본회 자문위원)

- 기관부문 : 뉴스타파(인터넷 방송)



지난 12월 12일(수)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제 11회 <송건호 언론상>에 개인부문에서는 한홍구 교수가, 기관부문에서는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선정되었다.

송건호 언론상은 청암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참언론인의 사표로 언론 민주화에 한평생을 바친 청암 송건호 선생의 올곧은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되었다.

올해는 사회의 각종 현안을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인권 의식과 평화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한홍구 교수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진실보도를 추구한 독립언론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수상하였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2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강만길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배영철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곽태원	50,000	100,000	백낙청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권경업	50,000	50,000	백영미	10,000	10,000	임형진	10,000	10,000
권상운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장두원	20,000	20,000
권순갑	20,000	20,000	서영훈	30,000	30,000	장팔순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전창일	20,000	20,000
김사원	10,000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정기춘		20,000
김경년		50,000	신명식	10,000	1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경애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신영한	1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신준수	20,000	20,000	정지완	5,000	5,000
김동현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삼웅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소중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희환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우상호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우한나		2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유기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유은숙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원목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종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최병욱	10,000	10,000
김정경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찬식		2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한세웅	30,000	30,000
김종성	10,000	20,000	이건용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이계환	10,000	10,000	홍윙희	10,000	10,000
김종배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홍승현	10,000	20,000
김준상	50,000	50,000	이두희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김중숙	10,000	10,000	이병규		1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상배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영숙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영후	30,000	3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원혁	100,000	100,000			
김희선	2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노웅래		20,000	이인석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일선	30,000	3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동기	5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학노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학효	10,000	10,000			
박의관	30,000	30,000	이향중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해준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화순	30,000	30,000			

2012년 11월, 12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최기창	10,000	10,000
김갑제	50,000	

2012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토오티오	10,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심재경	100,000	
서중석	100,000	
최혁배	100,000	
(사)매현 윤봉길		600,000
선생기념사업회		
(주)컨설팅테크		3,000,000
인터넷서널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거쳐간 독립운동가 ④



국권회복기 의병투쟁과 서대문형무소(1866)

1876년 일제는 소위 함포외교로 불린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1895년 폭도들을 앞세워 조선의 궁궐에 난입하고 국모인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또한 러일전쟁 후 대륙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며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을 박탈하고 1910년 우리나라의 국권마저 빼앗아 버렸다. 흔히 우리가 국권회복기라고 부르는 이 기간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으나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국력이 약하였고 내부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였기에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식민지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나라를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의병이다.

크게 3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의병투쟁 중 1907년 12월부터 1908년 12월까지 약 1년간 후기에 일어났던 기록만 보아도 약 1,900여 차례 넘게 일제와 의병이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일본경찰이 참여한 의병과의 전투횟수로서 일본군대만의 의병토벌 횟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의병들은 무기의 열세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뚝뚝 뚫었기에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서대문 현저동에 근대식 감옥인 경성감옥을 세워 의병들을 수감하여 탄압하고 그들의 저항의지를 꺾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투옥되어 순국한 애국지사는 모두 165명이다. 이 가운데 의병은 총 57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한다. 이것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애국지사들을 각 계열별로 분류해 보더라도 의병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 시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은 일제의 침략에 가장 격렬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하였고 후손들에게 시련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고자 노력하였기에 서대문형무소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병탄이후 장기간 치열하고 끈질기게 전개한 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더 나아가 8. 15 해방까지 이끌었던 시발점이 의병투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조들의 구국항쟁의지를 본받고 소중한 자주독립의 유산으로서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계승해야 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일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org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